

## 규소강판 수입관세 4%로 인하 확정

그동안 진흥회가 업계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에 건의한 규소강판 수입관세가 7월 1일부터 4%로 인하된다.

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국제적인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규소강판의 수입관세가 현행 8%에서 4%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중전기 업계의 규소강판 공급이 원활해 지고 관세인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도 연간 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.

변압기 등 중전기의 기초 원자재인 규소강판의 올해 국내 총 소요량은 27만 3천톤이나 포항제철의 용광로 정기보수 및 일본고베 지진으로 인한 신일본제철소의 생산물량 조달차질 등에 따라 8만 2천톤 정도의 부족물량이 발생했으며 외국 제품 수입시 국산제품에 비해 15~23% 정도 비싸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중전업계의 수입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규소강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포철의 내수공급 확대와 함께 관세율을 인하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 정부에서 중전기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, 관세율을 8%에서 4%로 획기적으로 인하 조정하게 된 것이다.

이와 관련한 외국의 관세율을 보면 대만의 경우 2.5~8%, 일본 8%, 미국 5.8%, EU 6%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WTO 양허세율은 18%로 되어 있다.

한편,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중전업계의 규소강판 부족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반기중 러시아 등에 규소강판 구매사절단을 파견, 공동구매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.